

충남리포트 제128호

# ChungNam Report

2014. 09. 23.

##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한남대학교 중국통상경제학부 교수, hongkee@hnu.kr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벤처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창업→성장→재투자 등 창업벤처자금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출하고,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적합한 투자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CONTENTS

< 요약 >

1. 벤처기업의 육성 필요성
2. 벤처자금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3.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능
4. 충남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금융의 현황
5. 국내외 창업벤처정책 비교
6. 충청남도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전략 제언

### 요 약

-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발굴은 물론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기술 및 지식, 기업가정신을 축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충남지역 벤처기업은 2013년 9월 현재 971개로 전국대비 3.34%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충남도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취약한 수준임. 따라서 지역차원의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하고 나아가 벤처생태계로의 자금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유입되기 위한 벤처자금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함.
-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의 벤처투자금융이 활성화 되어야 함.
- 충남도 차원의 투자금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함. 첫째, 지역엔젤매칭펀드 설립. 둘째, 충청남도 기반의 벤처캐피탈 설립. 셋째, 지역벤처투자조합 결성. 넷째,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기업의 참여 유도임.



## 벤처기업의 육성 필요성 ◀

# 01

-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란 독자적인 신기술·아이디어,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척해 나가면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중소기업의 의미.
- 이러한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발굴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지역차원에서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에서의 기술 및 지식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축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함.
- 정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그 결과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9월 현재 29,044개로 2.4배 증가하였음. 또한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006년 89억 원이던 것이 2011년 말 기준 1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3년 9월 현재 971개로 전국대비 3.34%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지역총생산이 전국 3위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가 전국 4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하여 벤처기업의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 평가됨. 따라서 지역차원의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02

## ▶ 벤처자금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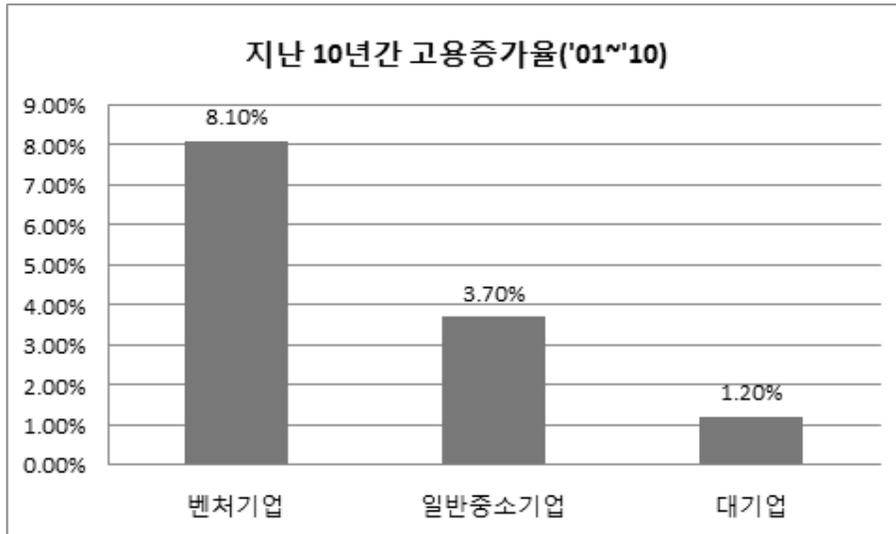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창업·벤처기업은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 단계(start-up), 성장초기 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
  - 이러한 성장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환경을 벤처생태계라 하는데, 벤처생태계로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함
  -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벤처자금생태계라 함
  
- 벤처자금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이라는 순환구조가 막혀 벤처자금생태계가 취약한 실정.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용자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패에 따른 위험이 가중되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M&A 형태의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이후 회수하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 벤처투자액은 잔액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 9월 현재 2,718개 업체에 4조 2,344억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수치임.
  
- 충남지역의 벤처투자는 열악한 실정임.
  - 충남지역에 대한 벤처투자는 잔액기준으로 94개 업체에 1,094억 원으로 전국대비 2.6%를 차지하여 저조한 실정.

- 충남벤처기업들은 자금애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현재 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이 전무하고 또한 지역엔젤매칭투자펀드도 설립되어 있지 못함.
  -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자금생태계 확립을 위한 지역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임.

# 03

## ▶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능

- 벤처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높은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지난 10년간(2001~2010)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8.1%로 일반 중소기업 3.7%, 대기업 1.2%에 비해 크게 높아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의 2배 이상, 대기업의 6.5배 이상 고용을 창출함



- 벤처기업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
  - 2011년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18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07년 GDP대비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율이 7.5%이던 것이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4.7%를 차지함

● 벤처기업은 새로운 산업이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지역차원에서 벤처기업은 지역의 기술지식자본을 축적하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함.

# 04

## ▶ 충남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금융의 현황

### 가. 충남지역의 벤처기업 현황

- 첫째, 벤처기업의 수 측면에서 충남도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취약함.
  -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수는 971개로 전국 대비 3.34%를 차지하며, 전국 9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둘째, 충남벤처기업은 창업기업이 41.7%에 달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35.4%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기타, 정보처리S/W 등의 순임.
  
- 셋째,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평균 자본규모는 35.2억 원이고 부채는 42.8억 원 그리고 자산은 78억 원으로 조사되고 있음('12년말 기준).
  - 이 수치는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큰 수치임. 따라서 재무상황의 측면에서 충남도의 벤처기업은 전국평균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넷째,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 자기자본비율은 45.1%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부채비율은 121.6%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아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섯째,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012년 말 현재 104억 원으로 전국 평균 67.1억 원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여섯째,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자금애로사항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충남벤처 기업들은 자금애로사항에 대해 64.8%가 ‘그렇다’ 이상으로 지적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벤처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로 전국 평균 6.5%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나. 벤처투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 벤처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0년대 초반 벤처붐과 더불어 벤처투자금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IT 버블 붕괴와 더불어 벤처투자금융이 크게 감소하였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확대로 벤처투자잔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2013년 9월 현재 벤처투자잔액은 2,718개 업체에 4조2,344억 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치임.
- 투자조합수는 2003년 430개를 최고로 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333개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9월 현재 424개에 이르고 있음. 2013년 9월 현재 조합결성금액은 9조8648억 원에 이르고 있음.
- 벤처투자가 주로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벤처투자는 매우 저조하고 취약함.

- 지역별 투자잔액을 살펴보면 '13.9기준 서울(41.2%), 경기(26.3%) 등 수도권이 71.0% 차지하여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충남은 2.4%로 대전 4.1%, 충북 3.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충남지역 벤처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9월 현재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1,094억 원. 전국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음. 충남도의 투자잔액은 '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결론적으로 벤처투자금융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작은 규모이지만 특히 충남지역 차원의 벤처투자금융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선진국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오랜 창업문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민간 주도형 창업 문화가 정착된 창업 선진국임.
  - 특히 '90년대 들어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벤처창업 형성과 순환을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창업국가를 지향하는 대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마련하여 창업열기를 더하고 있음.
  - 벤처생태계 조성의 중심에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자리잡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창업 생태계는 두텁고 효율적인 벤처캐피탈 시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인데, 미국에서는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에 의해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M&A를 통한 회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었음.
  
- 이스라엘은 정부주도로 하이테크 창업과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
  - GDP 대비 R&D 비중과 1인당 창업 수, 그리고 1인당 벤처투자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하고 NASDAQ 상장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임.

- 이스라엘은 창업단계의 벤처캐피털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임.
  - 이스라엘은 민간 엔젤 투자자와 엔젤 그룹이 활발히 활동하여 창업 예비 단계와 창업 단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
  - 이스라엘 정부는 2011년 창업단계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외국 엔젤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엔젤 법(Angel Law)” 제정하였음.
  - 또한 TIP를 운영하여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고 요즈마펀드를 조성하여 정부와 민간이 단순히 위험을 분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자가 정부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어 상향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음.
- 핀란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R&D를 장려하는 등 혁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GDP대비 R&D투자비중은 3.84%로 이스라엘(4.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연구원수는 1,000명당 15.7명으로 35개국 중 가장 높음.
  - 핀란드는 R&D 투자, 교육 경쟁력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고성장 기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적극적인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단계에서 벤처캐피털 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공적 투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정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형을 개관하여 운용
  - 핀란드는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형을 근간으로 산·학·연이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효과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
-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크게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장려 지원,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등에서의 우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법인세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상 특례, 스톡 옵션, M&A지원 등이 있고,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음.

- 2013년 5월, 정부부처합동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
  - 핵심 목표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용자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유인제도 도입, 새로운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
  
- 또한 2013년 10월에는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를 위해 ① 선도적 모험자본 투자기능 활성화, ② 개방적 운용자 규제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③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방안, ④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음.

# 07

## ▶ 충청남도의 창업벤처기업육성 전략 제언

-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투자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함.
  - 첫째, 지역엔젤매칭펀드 설립.
  - 둘째, 충청남도 기반의 벤처캐피탈 설립.
  - 셋째, 지역벤처투자조합 결성.
  - 넷째,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 다섯째, 대기업의 참여 유도.
  
-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함
  - 출자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한국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태펀드에서 40억 원, 충남도를 비롯한 지역차원에서 10억 원을 조성.
  -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그리고 충남벤처투자협회에서 출자를 하도록 유도.
  -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도록 함.
  
- 벤처캐피탈의 설립 요건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전문인력, 자본금 조달, 벤처캐피탈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
  -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투사의 경우 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의 참여가 필요.

- 은행의 경우는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을 인수하였고 최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은행 역할강화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하나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의 참여도 가능할 것임.
- 기업의 출자로는 대기업이 적절하고, 현대제철이나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한화 등을 거론할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설득하고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한편 충남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기업인의 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한편 충남지방자치단체도 충남통상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일정 정도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충남도 차원에서 투자조합결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그동안의 지역투자조합이나 타 투자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출자금 규모는 200억 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출자금은 충남도에서 TP를 통해 일정 정도(30억 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대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충남벤처기업협회 그리고 개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태조합과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운용사(GP)는 지역벤처캐피탈이 수행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벤처캐피탈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지역 소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앙정부의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공사의 성장사다리펀드 등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벤처캐피탈이나 지역투자조합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이들에게 적극 지역 차원의 계획이나 유망기업의 소재를 홍보하여야 함.
- 중앙정부는 매년 막대한 벤처자금, R&D 자금이 지역내 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충남도가 중앙부처와의 주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공동 R&D 설명회,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면 지역 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지역 내 대기업은 벤처기업에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시장 역할을 함. 하나는 중간재를 포함한 생산물품의 구매처로서 다른 하나는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의 M&A를 통한 회수창 구입.
-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벤특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지분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으로 예측됨.
- 충남도가 노력하여 대기업의 M&A 2~3건만 성사시키면 지역차원의 M&A생태계가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김 홍 기 교수

한남대학교 중국통상경제학부

042-629-7597, hongkee@hnu.kr

※ 본 연구는 ‘창조경제를 위한 충남도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방안(자금지원 중심으로)’ (2013)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참고 자료 ◆

- 강유리(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KISDI 초점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금융위원회(2013),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2014.1),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세제지원의 활용과 기대효과
- 김기완(2011),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확인 유형을 중심으로
- 배영임·표한형·김영태(2012), 벤처생태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 벤처기업협회(2012),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 서승원(2008), 벤처캐피탈 경제학, 도서출판 글누리
- 이윤준(2011),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STEPI Insight,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임주엽·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 현황 및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용석(2006), SBIC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한 기술금융 정책의 이슈와 시사점,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2011), 선진국 창업·벤처정책 사례
- 중소기업청(201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2013), 벤처캐피탈 업무운용상황 보고

##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외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